

양인모 In Mo Yang | Violin

"흐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내면의 진솔함을 연주로 표출해내는 매력적인 능력"

- 보스턴 글로브

양인모는 2022년 제 12회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의 우승자이다. 그는 또한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위촉곡으로 최고 연주상(해석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 사카리 오라모는 "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양인모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음악적으로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훌륭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 그의 연주는 전혀 과도함이 없이 노래하듯 매끄럽고 자연스럽다" 라고 호평하였다.

또한 그는 2015년 3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제 54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가 9년 만에 배출한 우승자이기도 하다. 당시 심사위원장 파비오 루이지는 양인모에 대해 "직관적 능력이 뛰어난 음악가이다. 그의 파가니니는 매혹적이며 품위있다" 라고 했다. 우승과 더불어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 등 각종 특별상을 동시에 휩쓴 그는 부상으로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한 악기 과르네리('일 캐노네')로 리사이틀을 가졌다.

201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 후 카네기홀 와일 홀 데뷔 무대를 가진 양인모는 보스턴 심포니홀,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등 미국 주요 무대에 진출하여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양인모는 파비오 루이지, 네메 예르비, 정명훈, 오스모 벤스케, 제임스 개피건, 마린 알슘 등 세계적인 명성의 지휘자들과 함께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치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협연하였으며, 2022 년, 그의 주목 할 만한 연주로는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프랑스 메츠와 한국에서의 투어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되어 3 번의 협연 무대를 가지는데 오는 11 월 진은숙의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도 예정 되어있다.

2021 년, 그는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현의 유전학] 음반을 발표했다. 이는 2019 년 발매한 그의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 개의 카프리스' (금호아트홀 공연 실황)에 이어 두 번째 음반이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양인모는 미리암 프리드를 사사하며 졸업했고,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안티에 바이타스의 제자로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양인모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c.1718 년 "보스토니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지원받아 연주하고 있다.

In Mo Yang | Violin

Korean violinist Inmo Yang has been hailed by the Boston Globe for his "seamless technique and a tender warmth of tone," combined with "an ability to project an engaging sense of inner sincerity through his playing." In March 2015, he won the 54th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Premio Paganini" in Genoa, Italy, marking the first time since 2006 that the Paganini Competition jury awarded First Prize. He also garnered the following special prizes: youngest finalist, best performance of the contemporary original piece, and performance most appreciated by the audience, confirming The Violin Channel's praise of Inmo as "one of the new generation's most talented young string virtuosi."

Inmo has performed with many prestigious orchestras and in many renowned recital venues worldwide. As a winner of the 2014 Concert Artists Guild competition, he gave his Carnegie Hall recital debut at Weill Recital Hall. More recently, his victory at the Paganini competition led to concerto engagements with conductor Fabio Luisi and a special recital in Genoa using Paganini's own Guarneri Del Gesu violin.

In 2018, Inmo performed with Orchestre Nationale de France in Rolle and Geneva, as part of the orchestra's tour in Switzerland. Inmo was also invited to Paris in January of 2019 to perform Saint-Saens' third violin concerto with the orchestra at the Radio-France auditorium. In Korea, Inmo was the Kumho Art Hall artist-in-residence for the 2018 season. As part of the residency, Inmo gave a performance of Niccolò Paganini's 24 caprices, which was recorded live and released under the Deutsche Grammophon label in November 2018.

Born in Indonesia to a Korean family in 1995, Inmo Yang gave his debut recital at age 11 on the Ewon Prodigy Series in Seoul, followed by his concerto debut at age 15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He gradu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in February 2011 and was then admitted into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 a prodigy in music. He currently attends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where he is the only violinist in its highly selective Artist Diploma program. Inmo performs on a 1705/1708 Antonio Stradivari violin on generous loan from a private donor.